

## 교사 대상 설문 조사: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계 시민성을 교육을 위한 교사의 동기, 기술 및 교육 기회

Teachers have their say: Motivation, skills, and opportunities to teach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lobal citizenship  
(UNESCO와 Education International의 연합보고서, 2021년 11월)

### 목적

심화되는 지구 온난화, 증가하는 자연 재해 등의 기후 변화는 특히 취약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기후 위기 해결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식을 고민하는 교육의 역할을 생각해보고, 교육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준비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교사의 동기부여와 인식도,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가능성, 교사 지원에 관한 20가지 주제로 나뉜다. Global Report 3호에서는 보고서가 제안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ESD)과 세계 시민 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의 정의와 하위 영역을 알아보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주요 영역 요약

#### 1. 정의와 4가지 하위 영역:

지속가능발전 교육(ESD)과 세계 시민 교육(GCED)은 2015년 UN이 발표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와 2016년 UNESCO가 발표한 2030 교육 어젠다(Education 2030 Agenda)의 등장 이후 그 개념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면서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두 개념은 **모든 연령의 학습자에게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및 행동을 갖추게 하는 교육과,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지속가능발전 교육은 '지속 가능한 삶을 배우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세계 시민 교육은 학습자가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자신의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습자에게 지구상의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인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부여하고, 비판적인 지식을 갖추고, 평화롭게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 공감하는 시민이 되도록 한다. 이 보고서에서 주의 깊게 살펴본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하위 영역은 4가지로 나뉜다.

1)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교육**은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촉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교육 참여자들은 생산과 소비 선택의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고, 이를 일상 생활에서 행동으로 전환하여 저탄소, 자원 효율, 지속 가능한 사회 및 경제에 기여하는 방법을 배운다.

2) **기후변화교육**은 기후변화(인간의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지구의 통상적인 기후, 온도, 강수량 변화가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 기후불평등(불평등한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생명다양성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3) **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권 교육**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유린과 인권침해를 관찰하고 예방해야 할 책임에 대해 배우는 것이다. 인권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타인의 권리를 지지하고 옹호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학습한다. 인권교육은 또한 여성과 남성, 소녀와 소년이 동등한 권리, 책임, 그리고 기회를 갖는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것을 다룬다.

4) **문화적 다양성과 관용 교육**은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자가 국적, 민족, 종교,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세계 문화, 표현 방식, 그리고 세계관 및 인간성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 출처

## 주요 영역 요약

### 2. 교사 설문조사 결과:

#### 1) 교사의 동기부여와 인식도

- 교사들은 ESD 및 GCED 주제에 대해 배우고 이러한 주제를 가르칠 커리큘럼 자료를 개발하는 데 관심이 있다.
- 교사들은 전학교적 접근법과 더 넓은 공동체로부터의 더 많은 참여를 원한다.
- 교사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르칠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교수법과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할 때 더 많이 협력한다.
- 교사들은 교육과정에서 ESD와 GCED를 충분히 다루지 않는 것이 ESD와 GCED 주제를 가르치는 데 가장 심각한 구조적 장벽이라고 느낀다.
- 교사들은 4가지 ESD 및 GCED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지속가능 소비/생산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스스로 느낀다.
- 지속가능 소비/생산은 가장 적게 가르치는 주제인데, 이는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ESD 및 GCED 문제를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나이와 교사 경력에 따라 증가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반드시 실제 교육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 2) 교사 지원

- 일부 교사들은 COVID-19 기간 동안 온라인 솔루션과 자료 제공을 위한 정부 및 비공식 교사 훈련 기관의 도움을 받았으나, 다른 교사들은 제한된 지원을 받았다.
- 학교 차원에서는 가장 큰 장애물로 관련 장비와 도구가 부족함을 언급했다.
- 혁신적인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는 ESD 및 GCED 교육 자원(콘텐츠, 자료 또는 지침)을 보유한 교사는 거의 없었다.
- 도시 외 지역의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ESD와 GCED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교사들의 3분의 1 이상이 학제간 주제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나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 3)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의 가능성

- 여성 교사들은 ESD와 GCED를 더 자주 가르치고 ESD와 GCED 주제를 가르칠 때 어려움을 덜 느낀다고 보고한다.
- 교사들은 교사 연수가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그리고 기후 변화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보고하였고, 더 많은 교육 경험과 교실 경험을 가진 교사들은 이러한 주제들을 가르치는 데 더 자신감을 느낀다.
- 학생들은 (특히 초등학교 수준에서) ESD와 GCED에 대한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 교사들은 전통적인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ESD와 GCED를 평가하고 있다.
- 교사들은 특히 ESD에서 인지 기술(cognitive skills)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더 자신감을 느끼고, 행동 학습(behavioral learning)과 사회 정서적 관점(socio-emotional perspective)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교사는 많은 교수 자료가 요구되지 않는 교수법을 더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 교사들 중 40%는 학생들의 ESD 및 GCED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1)기술, 2)동기, 3)교육 기회 모두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즉, 교사는 ESD와 GCED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교육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며, 교육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출처